

2021-05

금융시장 브리프

2021. 05. 06.

● 빠른 경기 회복세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아 5~6월 중 국내외 국채금리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주요국 통화와 주가는 완만한 강세를 지속할 전망

- 한은과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한국 0.50%, 미국 0.25%)
- 국고채 금리는 경기 회복,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운용(국채수급 부담)을 반영하여 완만한 오름세(국고 3년물 4월말 1.14% → 5월말 1.16% → 6월말 1.18%)
- 선진국 국채금리는 백신 접종에 의한 경기 회복 기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발행물량 증가로 소폭 상승(미 국채 10년물 4월말 1.63% → 5월말 1.66% → 6월말 1.69%)
- 원화는 국내 수출경기 회복세,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위안화 절상과의 동반 흐름으로 강세압력이 다소 우세(원/달러 4월말 1,112 → 5월말 1,110 → 6월말 1,108)
- 주요국 통화는 글로벌 경제 정상화 기대로 달러화 대비 소폭 강세
- 한·미 주가지수는 기업실적(특히 반도체 등 IT 업종) 개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배경으로 완만한 오름세 지속(KOSPI 4월말 3,148 → 5월말 3,180 → 6월말 3,210)
- 은행업 주가지수는 경기 개선에 따른 시중금리 오름세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양호한 상승세(4월말 1,942 → 5월말 1,970 → 6월말 2,000)

작성자: 경제·글로벌연구실 허문종 팀장(02-2173-0568)

이다은 선임연구원(02-2173-0578)

박수빈 조사원(02-2173-0556)

책임자: 경제·글로벌연구실 권영선 실장(02-2173-0569)

I. 5~6월 금융시장지표 전망

1. 금리

가. 국내금리

■ 한국은행은 5.27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동결할 전망

-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의 견조한 회복세, 대규모 초과저축에 기 반한 소비 반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인플레이션 압력 도 크지 않아 한은 기준금리는 현 수준에서 유지
 - * 경제성장률이 2020.4분기 1.2%(전기비)에서 2021.1분기 1.6%로 높아져 코로나 이 전(2019.4분기) GDP 수준을 회복
 - * 금년들어 자국 경제 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통화정책이 일부 차별화되는 모습(p4 참고)

■ 국고채 3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4월말 1.14% → 5월말 1.16% → 6월 말 1.18%

- 경기 회복, 지표물가 상승,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채수급 부담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상승압력이 점증하겠으나, 한은의 국채 매입 과 기관·외국인의 투자 수요로 금리 상승폭이 둔화
 - * 주요기관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IB평균 4.0(범위 3.4~4.6), IMF 3.6
 - *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4.9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3.25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전 체 지원금 규모는 지출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20.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
 - * 한국은행은 4.27일 1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했으며 당초 계획에 따라 상 반기 중 2~4조원을 추가 매입할 것으로 예상

■ 국고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4월말 2.13% → 5월말 2.15% → 6월 말 2.17%

- 경기 개선과 지표물가 상승, 추경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고채 10년물 금 리는 상승압력이 우세하나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 부담, 한은의 국채 매입으 로 금리 상승폭이 제한
 - * 10년물-3년물 금리 스프레드(bp): 2011.1.13일 107 → 2019.8.28일 6(단기 저점) → 2021.3.18일 102(10년2개월래 최대) → 4.30일 99

국내금리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3월	4월	5월(F)	6월(F)
기준금리	기말, %	0.50	0.50	0.50	0.50	0.50	0.50
국고채 3년	기말, %	0.98	1.25	1.13	1.14	1.16	1.18
국고채 10년	기말, %	1.71	2.15	2.06	2.13	2.15	2.17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4.23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4월 국고채 금리 전망에 대한 평가(B등급¹⁾)

- 4월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14%로 전망치(1.18%)를 하회
-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따른 미 국채금리 안정과 한은의 추가 국채매입으로 국고채 금리의 상승압력이 예상보다 둔화

나. 해외금리

■ 미 연준은 6.15~16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0.25% 상한)할 전망

- 연준은 평균물가목표제(Average Inflation Targeting) 도입을 통해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완전 고용, 물가상승률 2%)으로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장기간 유지할 방침임을 시사
 - * 연준은 4.27~28일 FOMC에서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인 상승 이후 안정될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금리와 자산매입 속도를 현 수준에서 유지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4월말 1.63% → 5월말 1.66% → 6월말 1.69%

- 연준의 국채 매입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 조기정상화, 바 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
 - * 바이든 대통령은 4.21일 백악관 연설에서 취임 100일안에 2억회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92일만에 조기 달성하였으며, 4.28일 1.8조 달러 규모의 가계여건 개선 투자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공개
 - * IMF는 2021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1%(1월)에서 6.4%(4월)로 상향 조정

■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4월말 -0.20% → 5월말 -0.19%

1) 대표 금리지표(국고채 3년)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bp 이하는 S등급, ±3bp 이하는 A등급, ±5bp 이하는 B등급, ±5bp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 6월말 -0.17%

- 봉쇄조치 연장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의 매입 속도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EU 경제회복기금 집행, 백신 접종 가속화 등으로 독일 국채금리는 완만하게 상승(마이너스 금리폭 축소)
 - * 독일 정부는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수가 4일 연속 100명(7일 평균 기준) 이상인 지역을 대상(전체 지역의 85%)으로 4.24일부터 야간 통행금지 등 봉쇄조치를 재차 시행
 - * 유럽중앙은행(ECB)은 4.2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 규모를 1.85조 유로로, 기한을 2022.3월로 각각 유지한 가운데, 채권 매입속도를 1분기보다 높이겠다는 지난 회의 결정내용을 재확인
 - * 접종센터뿐 아니라 일반의원에서도 백신 접종이 허용되면서 4.29일 기준 독일 전체 인구의 26%가 1차 접종을 완료

■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4월말 0.84% → 5월말 0.86% → 6월말 0.88%

- 영란은행(BOE)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가속화, 글로벌 금리 오름세와의 동조화로 영국 국채금리는 상승압력이 우세
 - * 영란은행은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뚜렷한 경기 회복 신호가 나오기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기준금리 0.10%, 자산매입규모 8,950억 파운드)를 유지하겠다고 언급
 - * 영국 정부는 7월 말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1회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4.30일 기준 1회 접종률은 50.2%로 세계 2위)

■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4월말 0.09% → 5월말 0.10% → 6월말 0.11%

-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 기대, 일본은행(BOJ)의 장기물 목표 금리 변동범위 확대, 글로벌 금리 오름세로 일본 국채금리는 완만하게 상승
 - * 봉쇄조치 완화(3.22일) 이후 일본 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4개 광역자치단체(도쿄도,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에 3번째 긴급사태를 발효(4.26일)
 - * BOJ는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2021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낮췄으나(0.5%→0.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3.9%→4.0%)

해외금리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3월	4월	5월(F)	6월(F)
미국 기준금리	기말, %	0.25	0.25	0.25	0.25	0.25	0.25
미국 국채 10년물	기말, %	0.91	1.85	1.74	1.63	1.66	1.69
독일 국채 10년물	기말, %	-0.57	-0.20	-0.29	-0.20	-0.19	-0.17
영국 국채 10년물	기말, %	0.20	0.90	0.85	0.84	0.86	0.88
일본 국채 10년물	기말, %	0.03	0.11	0.09	0.09	0.10	0.11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4.23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4월 미 국채금리 전망에 대한 평가(C등급²⁾)

- 4월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63%로 전망치(1.78%)를 크게 하회
-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미 국채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반락

※ 참고: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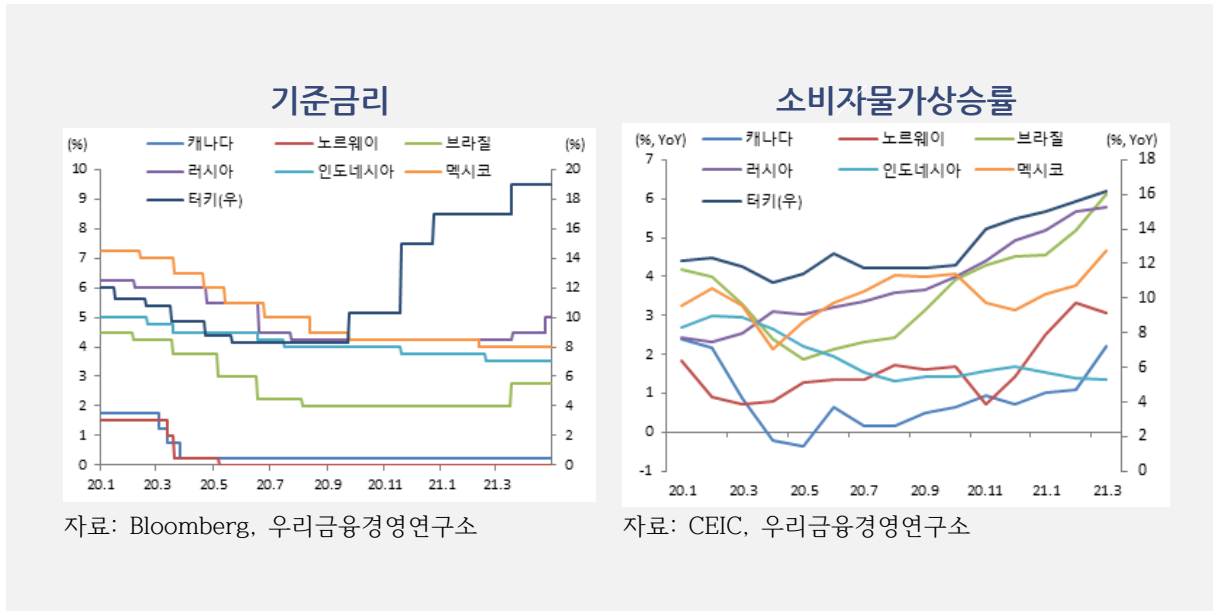
- 금년들어 자국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이 일부 차별화되는 모습
- 선진국 중에서는 ECB가 코로나 재확산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완화정책을 발표한 반면,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물가 오름세, 금융불균형(예: 주택가격 급등) 우려를 감안하여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사
 - 유럽중앙은행(ECB)은 3.1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통한 2분기 채권매입 규모를 1분기 대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
 - * 다만, 4.8일 국제통화금융위원회에서 라가르드 ECB 총재는 우호적인 금융 여건이 유지될 경우 PEPP를 전액(한도 1.85조 유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
 -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4.21일 경제 회복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양적완화(QE) 규모를 축소키로 발표(주당 40억 C\$→30억 C\$)하여 선진국 중 처음으로 테이퍼링을 실시
 - 노르웨이 중앙은행(NB)은 3.18일 통화정책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 시

2) 대표 금리지표(국고채 3년)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bp 이하는 S등급, ±3bp 이하는 A등급, ±5bp 이하는 B등급, ±5bp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기가 기존 2022년 상반기에서 2021년 하반기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여 포워드가이던스를 제공

■ **신흥국 중에서는 브라질, 터키, 러시아가 물가 급등과 통화가치 하락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나, 물가 상승이 제한적인 인도네시아와 멕시코는 경기회복세 지원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

- 브라질 중앙은행(BCB)은 3.17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2.00% → 2.75%)
 - * 2020.4분기 GDP 성장률이 반등하고, 2021년 인플레이션 전망치(5%)가 BCB 목표범위(3.75%±1.5%p)의 상단(5.25%)에 근접함에 따라 금리 인상을 전격 단행
- 터키 중앙은행(TCMB)은 3.18일 기준금리를 200bp 인상(17.0% → 19.0%)
 - * 3.20일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상을 주도한 나지 아발 중앙은행 총재를 임명 4개월만에 경질하고, 집권여당인 정의개발당(AKP) 사합 카브즈오을루 전 의원을 후임으로 임명
 - * 4월 기준금리 동결 이후 성명을 통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상승 위험을 감안하여 물가가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중기 목표치(5%)에 도달할 때까지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
- 러시아 중앙은행(CBR)은 3.19일 기준금리를 25bp 인상(4.25% → 4.50%)한데 이어 4.23일 추가로 50bp 인상(4.50% → 5.00%)
 - * 수요 회복에 의한 경기 개선세, 소비자물가상승률의 CBR 연간 목표치(4%) 상회,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루블화 약세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인상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낮은 물가 전망과 환율 안정을 배경으로 경기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 2.18일 기준금리를 25bp 인하(3.75% → 3.50%)
 - *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은 목표범위(3%±1%) 이내에서 하향 안정화
- 멕시코 중앙은행(BdeM)은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2.11일 기준금리를 25bp 인하(4.25% → 4.00%)
 -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월까지 중앙은행 목표범위(3%±1%p) 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시현



2. 환율

■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원화 강세) 전망: 4월말 1,112 → 5월말 1,110 → 6월말 1,108

-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주요국 대규모 재정지출에 의한 위험자산 선호 강화, 국내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위안화 절상추세와의 동반 흐름으로 원화 강세압력이 우세

* 통관수출(전년동월대비, %): 1월 11.4 → 2월 9.2 → 3월 16.5 → 4월 41.1

* 무역수지 흑자(억달러): 1월 37.5 → 2월 25.0 → 3월 41.3 → 4월 3.9

■ 위안/달러 환율 소폭 하락(위안화 강세) 전망: 4월말 6.47 → 5월말 6.46 → 6월말 6.45

- 중국의 양호한 경기 개선흐름, 외국인의 채권·주식 투자자금 유입으로 미 달러화 대비 위안화가 강세를 시현하겠으나, 외환당국의 위안화 강세 저지를 위한 시장개입으로 절상폭이 제한

* 중국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18.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중국 3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0.6% 늘어 1~2월(60.6%)에 이어 호조세를 지속

■ 엔/달러 환율 소폭 하락(엔화 강세) 전망: 4월말 109.3 → 5월말 109.0 → 6월말 108.7

월말 108.7

- 수출경기 회복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기조, 외국인의 일본 주식 투자자금 유입 증가 등에 힘입어 엔화는 강제압력이 우세하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미·일 금리차 확대에 강세폭이 제약
 - * 일본 경상수지(조엔): 2020.11월 1.9 → 12월 1.2 → 2021.1월 0.6 → 2월 2.9
 - * 일본 정부는 일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5천명대에 달하자 도쿄도 등 4개 지역에 17일간 (4.25일~5.11일) 긴급사태를 발령하고 상업시설 등에 휴업을 요청

■ 달러/유로 환율 소폭 상승(유로화 강세) 전망: 4월말 1.202 → 5월말 1.206 → 6월말 1.210

- ECB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지속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확대와 하반기 EU 경제회복기금 집행에 따른 유로지역 경제 정상화 기대로 유로화 강세 압력이 점증
 - * EU 국가들의 백신 보급이 가속화(일평균 3월 1.3백만회 → 4월 2.2백만회)되면서 4월 말 전체 인구대비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24%)이 3월말(12%) 대비 큰 폭 개선
 - * 유로지역 제조업PMI(기준선=50): 2월 57.9 → 3월 62.5 → 4월 63.3

주요국 환율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3월	4월	5월(F)	6월(F)
원/달러	기말, 원	1,087	1,110	1,132	1,112	1,110	1,108
위안/달러	기말, 위안	6.53	6.50	6.55	6.47	6.46	6.45
엔/달러	기말, 엔	103.0	108.5	110.7	109.3	109.0	108.7
달러/유로	기말, 달러	1.228	1.195	1.174	1.202	1.206	1.210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3.19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4월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한 평가(A등급)³⁾

- 4월말 원/달러 환율은 1,112원으로 전망치(1,135원)를 소폭 하회
-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와 미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심리 강화로 원화 강세(달러화 약세)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

3) 대표 환율지표(원/달러)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 이하는 S등급, ±3% 이하는 A등급, ±5% 이하는 B등급, ±5%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3. 주가지수

■ KOSPI 상승 전망: 4월말 3,148 → 5월말 3,180 → 6월말 3,210

- 공매도 재개(5.3일)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세,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실적 개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 힘입어 KOSPI 지수에 상승압력이 우세
 - * 5.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첫날, 코스닥 지수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하면서 큰 폭 하락(-2.2%)했으나, 코스피 영향은 제한됨(-0.7%)
 - * 4월 수출은 15대 주력품목이 모두 늘어난(반도체 +30.2%, 자동차 +73.4%, 석유화학 +82.6%, 무선통신기기 +79.7)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41.1% 급증
 - * 4월 중 주체별 코스피 순매수(조원): 개인 +5.8, 외국인 +0.4, 기관 -6.2
 - * 12개월 선행 PER(기말, 배, Bloomberg): 2021.2월 13.5 → 3월 13.1 → 4월 12.3

■ 은행주 상승 전망: 4월말 1,942 → 5월말 1,970 → 6월말 2,000

- 국내 은행주는 대출과 배당 관련 규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재연장 등 정책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 개선에 따른 시중금리 오름세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KOSPI 대비 양호한 상승흐름을 예상
 - * 금융위원회는 4.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안정화대책을 통해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되고 있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기준을 차주별로 적용하고 그 대상도 2023.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할 방침
 - * 2.17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배당축소(배당성향 20% 이내로 제한) 권고와 관련하여 6개월 후 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을 보고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

■ KOSDAQ 상승 전망: 4월말 983 → 5월말 995 → 6월말 1,005

- 공매도 부분재개에도 불구하고, 기업실적 개선, 한국형 뉴딜정책 관련 산업수혜,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KOSDAQ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 KOSDAQ 지수는 4.13일 1,001로 닷컴버블 이후 20년7개월만에 1,000을 상회
 - * 5.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부분 재개
 - * 4월 중 주체별 코스닥 순매수(조원): 개인 +1.2, 외국인 -0.3, 기관 -0.9

■ S&P500 상승 전망: 4월말 4,181 → 5월말 4,215 → 6월말 4,250

- 밸류에이션·증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른 경제활동 조기 정상화,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S&P500 지수에 상승압력이 점증

- * 바이든 행정부는 3.31일 인프라 투자계획(10년간 2.3조 달러 규모의 물적 인프라 투자, 법인세 인상)을 발표했으며, 4월에는 가계여건 개선 투자계획(1.8조 달러 규모의 교육·보육·의료를 포함하는 인적 인프라 투자, 개인소득세 인상)을 추가 공개
- * 법인세 최고세율을 28%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25% 인상 절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고소득자(연소득 1백만 달러 이상)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기존 20%에서 39.6%(투자소득세 3.8% 포함시 43.4%)로 인상할 계획

국내 주가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3월	4월	5월(F)	6월(F)
KOSPI	기말	2,873	3,300	3,061	3,148	3,180	3,210
은행업 주가지수	기말	1,557	-	1,869	1,942	1,970	2,000
KOSDAQ	기말	968	1,100	956	983	995	1,005
S&P500	기말	3,756	4,300	3,973	4,181	4,215	4,250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4.23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4월 KOSPI 전망에 대한 평가(S등급)⁴⁾

- 4월말 KOSPI는 3,148로 전망치(3,150)에 부합

※ 4월 은행주 전망에 대한 평가(A등급)

- 4월말 은행업 주가지수는 1,942로 전망치(1,895)를 소폭 상회
- 국내은행들의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시중금리 오름세가 이어져 은행주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우세

4) KOSPI, 은행업 주가지수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 이하는 S등급, ±3% 이하는 A등급, ±5% 이하는 B등급, ±5%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붙임1

4월중 국내금리 동향

■ 한국은행은 4.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동결

*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었으나(올해 3%대 중반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코로나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수요측면의 물가 상승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언급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1bp 상승(3월 1.13% → 4월 1.14%)

- 미 국채금리 안정으로 4.14일 1.10%까지 반락했으나 매파적인 금통위 영향으로 4.16일 1.15%로 반등한 후 한은의 국채매입으로 4.30일 1.14%로 마감
- * 한국은행은 4.27일 1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했으며 당초 계획에 따라 상반기 중 2~4조원을 추가로 매입할 것으로 예상

■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7bp 상승(2.06% →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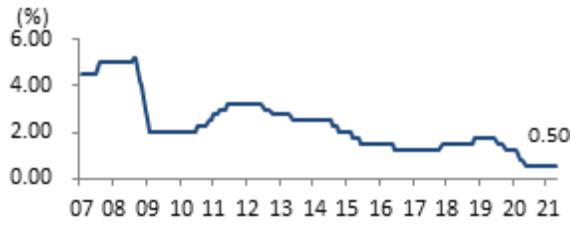
- 미 국채금리와 연동하여 4.14일 1.99%까지 반락했으나 매파적이었던 금통위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따른 수급부담으로 4.30일 2.13%까지 반등
- * 여당은 경기침체 극복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국내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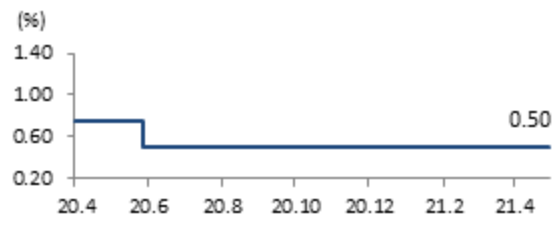
	단위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2/4	3/4	4/4	21.1/4	21.1월	2월	3월	4월	
금리	기준금리(기말)	%	1.75	1.25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국고채(3년, 기말)	%	1.817	1.360	0.976	0.842	0.846	0.976	1.133	0.971	1.020	1.133	1.141
	국고채(10년, 기말)	%	1.948	1.683	1.713	1.373	1.430	1.713	2.057	1.768	1.960	2.057	2.128
스프레드	국고3년-기준금리	bp	7	11	48	34	35	48	63	47	52	63	64
	국고채10년-3년	bp	13	32	74	53	58	74	92	80	94	92	99
	한국-미국(10년)	bp	-74	-23	80	72	75	80	32	70	56	32	50
	한국-독일(10년)	bp	171	187	228	183	195	228	235	229	222	235	233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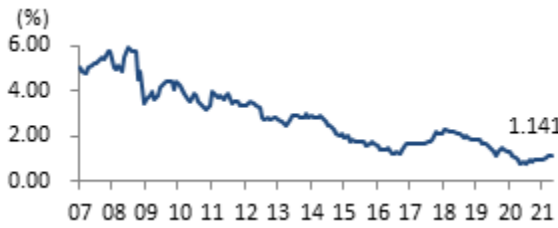
한은 기준금리(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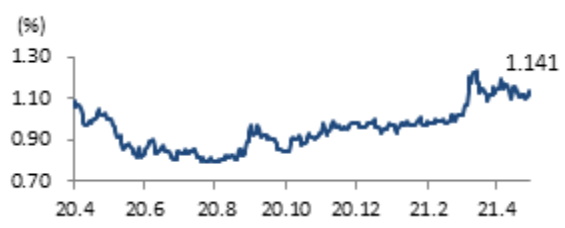
한은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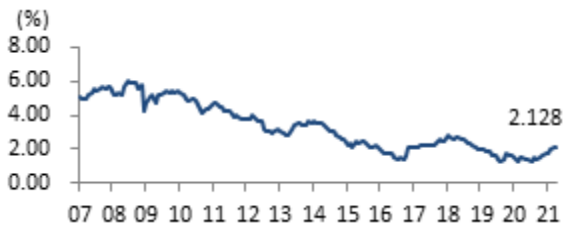
국고채 3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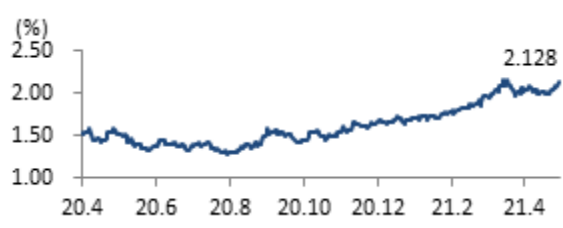
국고채 3년물(일간)



국고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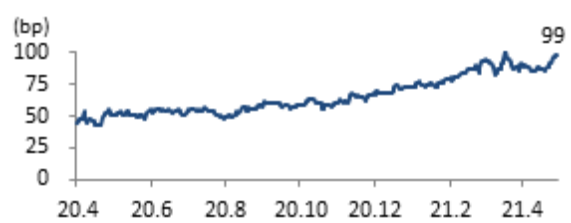
국고채 10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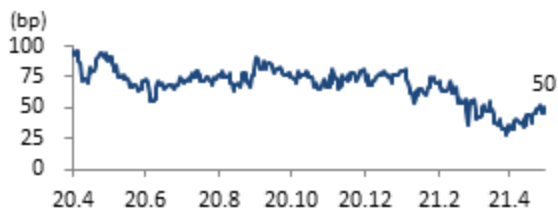
기준금리와 국고채 금리(일간)



장단기 금리차(국고채 10년-3년, 일간)



한국·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한국·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2 | 4월중 해외금리 동향

- **미 연준은 4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0.25% 상한)에서 동결**

 - * 연준은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인 상승 이후 안정될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금리와 자산매입 속도를 현 수준에서 유지
-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11bp 하락(3월 1.74% → 4월 1.63%)**

 - 증세에 따른 재원조달로 국채 수급부담이 일부 완화되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해소되면서 4.22일 1.54%로 낮아졌으나, 이후 양호한 경제지표와 국제유가 오름세로 4.30일 1.63%까지 반등
 - * 3월 제조업지수가 60.6로 3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3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9.8% 증가
-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9bp 상승(-0.29% → -0.20%)**

 - 역내 코로나 재확산, ECB의 채권매입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확대, 경제지표 개선으로 4.30일 -0.20%까지 상승
 - * ECB 총재는 올 여름까지 유로지역 인구의 70%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1회 접종을 완료할 것이며, 이로 인해 유럽 경제가 하반기에는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
 - * 독일 Ifo 기업체감지수는 4월 96.8로 4개월 연속 상승
-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bp 하락(0.85% → 0.84%)**

 - 영란은행(BOE)의 긴축 우려 해소,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4.20일 0.73%까지 반락했으나,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로 4.30일 0.84%까지 반등
 - * 영국 정부는 7월 말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1회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4.30일 기준 1회 접종률은 50.2%로 세계 2위)
 - * 3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5.4% 증가한 반면 3월 취업자수는 5.6만명 감소
-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보합 (0.09% →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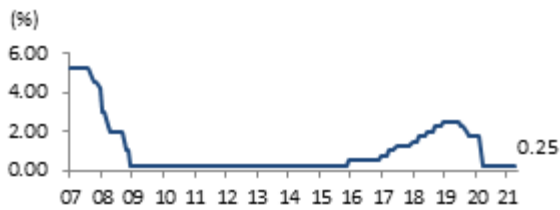
 -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주요국 국채금리 안정, 일본 내 코로나 재확산으로 4.22일 0.07%까지 하락했으나 경제지표 개선으로 보합 마감
 - * BOJ는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0.4%p 하향 조정(0.5%→0.1%)하면서 디플레이션 위험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

해외금리

	단위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2/4	3/4	4/4	21.1/4	21.1월	2월	3월	4월	
미국	기준금리(기말)	%	2.50	1.7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국채(10년, 기말)	%	2.684	1.918	0.913	0.656	0.684	0.913	1.740	1.066	1.405	1.740	1.626
독일	기준금리(기말)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국채(10년, 기말)	%	0.242	-0.185	-0.569	-0.454	-0.522	-0.569	-0.292	-0.518	-0.260	-0.292	-0.202
영국	기준금리(기말)	%	0.75	0.75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국채(10년, 기말)	%	1.277	0.822	0.197	0.172	0.229	0.197	0.845	0.327	0.820	0.845	0.842
일본	기준금리(기말)	%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국채(10년, 기말)	%	-0.003	-0.028	0.026	0.035	0.026	0.026	0.093	0.050	0.153	0.093	0.090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준 기준금리(월간)



연준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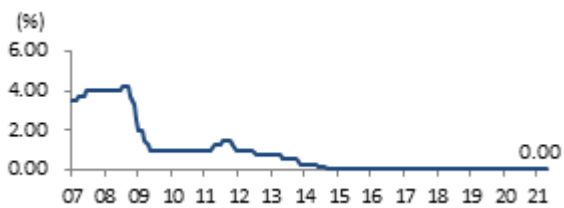
미국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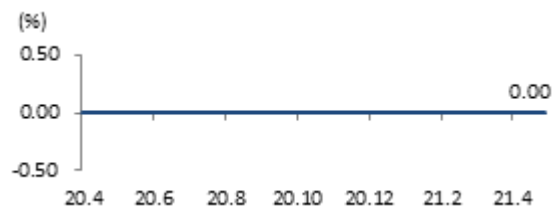
미국 국채 10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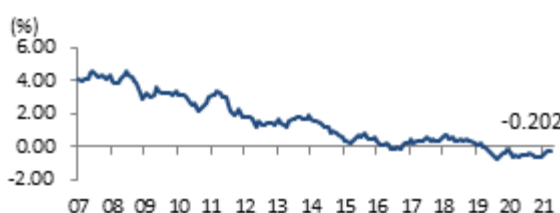
ECB 기준금리(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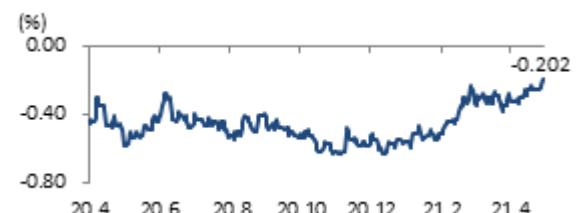
ECB 기준금리(일간)



독일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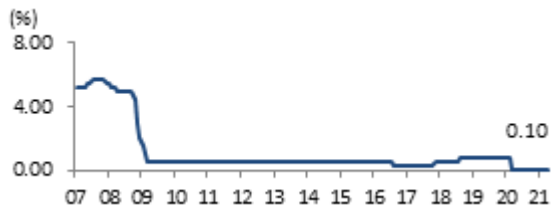


독일 국채 10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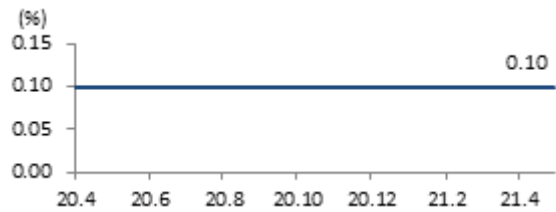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BOE 기준금리(월간)



BOE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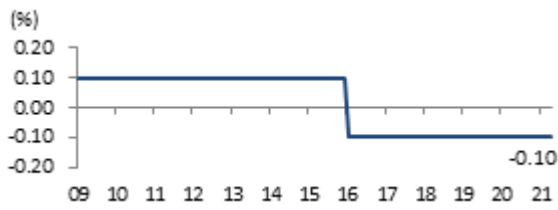
영국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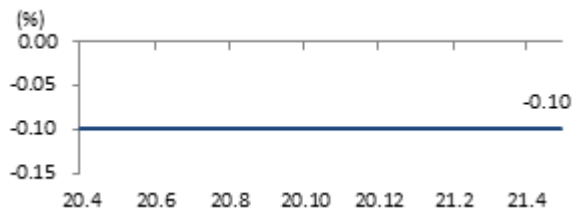
영국 국채 10년물(일간)



BOJ 기준금리(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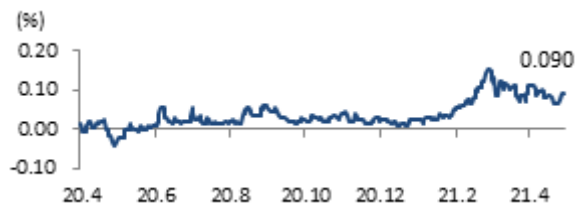
BOJ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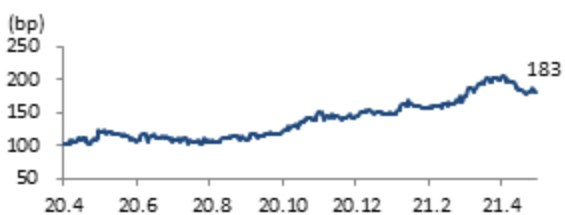
일본 국채 10년물(월간)



일본 국채 10년물(일간)



미국·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미국·일본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3 | **4월중 환율 동향**

■ **원/달러 환율은 전월말대비 1.7% 하락(원화 강세, 3월 1,132 → 4월 1,112)**

- 외국인 배당 역송금 수요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금리 안정과 글로벌 경기회복에 의한 달러 약세(달러인덱스 3월말 93 → 4월말 91), 국내 수출 개선, 경제성장률 호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 따라 원화 강세를 시현
 - * 한국 1분기 GDP가 전기비 +1.6% 성장하여 코로나 이전(2019.4분기) 수준을 회복
 - * 외국인 국내채권 순증(조원): 1월 1.5 → 2월 10.0 → 3월 9.4 → 4월 2.9

■ **위안/달러 환율은 1.2% 하락(위안화 강세, 6.55 → 6.47)**

-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된 가운데, 중국의 상대적으로 강한 경기회복세, 미 환율보고서 관찰대상국 유지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위안화 절상(달러화 약세) 압력이 가중
 - * 미 재무부는 4.16일 환율보고서에서 중국·한국 등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

■ **엔/달러 환율은 1.2% 하락(엔화 강세, 110.7 → 109.3)**

- 코로나 재유행에 의한 긴급사태 발령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금리 하락으로 미·일 양국 금리차가 축소됨에 따라 엔화는 강세로 전환
 - * 미국-일본 10년물 국채 금리차(bp, 기말): 2월 125 → 3월 165 → 4월 154

■ **달러/유로 환율은 2.4% 상승(유로화 강세, 1.174 → 1.202)**

- 4월 들어 역내 백신접종 속도 가속화, 제조업 경기회복으로 유로화 가치가 상승
 - * 유로지역 제조업PMI(기준선=50): 2월 57.9 → 3월 62.5 → 4월 63.3

주요 환율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2/4	3/4	4/4	21.1/4	21.1월	2월	3월	4월
원/달러(기말)	1,111	1,156	1,087	1,203	1,170	1,087	1,132	1,119	1,124	1,132	1,112
위안/달러(기말)	6.88	6.96	6.53	7.07	6.79	6.53	6.55	6.43	6.47	6.55	6.47
엔/달러(기말)	110.0	108.5	103.0	107.7	105.7	103.0	110.7	104.7	106.6	110.7	109.3
달러/유로(기말)	1.145	1.122	1.228	1.121	1.171	1.228	1.174	1.214	1.208	1.174	1.202
달러지수(기말)	96.2	96.4	89.9	97.4	93.9	89.9	93.2	90.6	90.9	93.2	91.3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4 | 4월중 주가지수 동향

■ KOSPI 지수는 전월말 대비 2.8% 상승(3월 3,061 → 4월 3,148)

- 코스피지수는 주요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 기업 실적개선 기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5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4.20일 3,221)한 이후 고점 부담으로 소폭 반락
 - * 4월 중 주체별 코스피 순매수(조원): 개인 +5.8, 외국인 +0.4, 기관 -6.2
- 국내 은행주는 3.9% 급등(코스피 대비 1.1%p 초과 상승)
 - 1분기 실적발표 이후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신한금융(+6.8%), 하나금융(+6.7%), 우리금융(+5.9%)이 상승한 반면, 차익실현 물량 출회로 KB금융(-2.7%)은 하락
 - * 4월중 외국인 순매수(억원): 신한 1,435, 우리 1,011, 하나 937, KB 563
- 글로벌 Top 50 은행주는 1.1% 오름세(아시아 Top 10 은행주는 3.8% 하락)

■ KOSDAQ 지수는 2.9% 상승(956 → 983)

- 코스닥지수는 주요국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중소형주 중심 투자수요 증가에 힘입어 20년 만에 1,000선을 돌파했으나, 연고점(4.20일 1,032) 이후 공매도 재개에 대한 경계감, 외국인·기관의 차익실현 매도세로 상승폭이 축소
 - * 4월 중 주체별 코스닥 순매수(조원): 개인 +1.2, 외국인 -0.3, 기관 -0.9

■ 선진국(MSCI DM)과 신흥국(MSCI EM) 증시는 각각 4.5%, 2.4% 오름세

- 미국(+5.2%), 유럽(+1.4%), 중국(+0.1%) 증시가 올랐으나, 일본(-1.3%)은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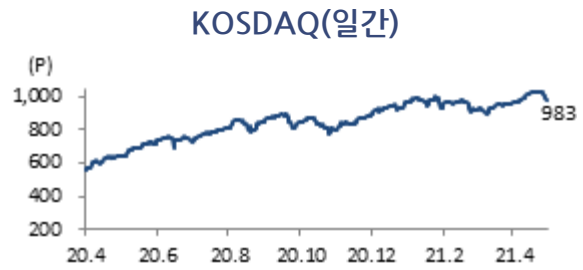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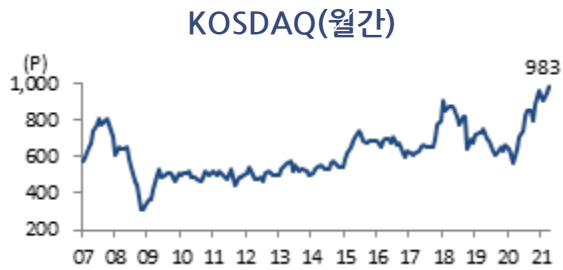
■ S&P500 지수는 5.2% 급등(3,973 → 4,181)

- 미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된 가운데, 1분기 기업실적 호조,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높은 백신 접종률, 바이든 대통령의 1.8조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발표(4.28일)에 따른 경기개선 기대감으로 큰 폭 상승

주요 주가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2/4	3/4	4/4	21.1/4	21.1월	2월	3월	4월
국내 증시	KOSPI	2,041	2,198	2,873	2,108	2,328	2,873	3,061	2,976	3,013	3,061	3,148
	KOSDAQ	676	670	968	738	848	968	956	929	914	956	983
해외 증시	(선진국)MSCI DM	1,884	2,358	2,690	2,202	2,367	2,690	2,812	2,662	2,727	2,812	2,939
	(신흥국)MSCI EM	966	1,115	1,291	995	1,082	1,291	1,316	1,330	1,339	1,316	1,348
	(미국)S&P500	2,507	3,231	3,756	3,100	3,363	3,756	3,973	3,714	3,811	3,973	4,181
	(일본)Nikkei225	20,015	23,657	27,444	22,288	23,185	27,444	29,179	27,663	28,966	29,179	28,813
	(유럽)Eurostoxx50	3,001	3,745	3,553	3,234	3,194	3,553	3,919	3,481	3,636	3,919	3,975
	(중국)상해종합지수	2,494	3,050	3,473	2,985	3,218	3,473	3,442	3,483	3,509	3,442	3,447
은행 주	우리금융	n.a.	11,600	9,730	8,810	8,580	9,730	10,100	8,800	9,580	10,100	10,700
	KB금융	46,500	47,650	43,400	33,950	37,550	43,400	56,200	40,300	43,800	56,200	54,700
	신한금융	39,600	43,350	32,050	28,750	27,600	32,050	37,450	30,650	32,950	37,450	40,000
	하나금융	36,250	36,900	34,500	27,000	28,100	34,500	42,800	32,650	37,050	42,800	45,650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Bloomberg

* 동 보고서는 연구원들이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배포되는 조사분석 자료입니다. 동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시황에 대한 예측 또는 금융시장지표 전망 등)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 시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